

20 세기 일본 건축: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의 각각의 특징

간몬 해협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은 일본이 서양 문화를 차례차례로 받아들여 ‘근대’ 사회로 거듭나려 했던 대전환의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건축물들은 그러한 변화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각 시대 건축의 특징에는 그 시대의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디자인 등을 통해 대략적인 건축 시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의 건축이 서양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1853 년에 미국의 특사 매슈 C. 페리 제독(1794~1858)이 우라가만(도쿄 근교)으로 내항하면서 200 년 이상에 걸친 일본의 쇠국이 끝난 것이 계기였습니다. 1858 년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외국 여러 나라가 일본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게 되자 외국의 사상과 기술이 일본 내에 유입되었습니다. 의양풍 건축으로 알려진 양식이 일본의 목수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공법을 구사해 석조와 탑 등의 서양 건축의 외관을 창조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메이지 건축(1868~1912)

메이지 시대에는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건축가와 기술자를 초청하고 젊은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의양풍 건축은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던 외국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은 1877 년에 고부대학교(현 도쿄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영국인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1852~1920)입니다. 그의 제자 중 대부분은 후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쓰노 긴고(1854~1919)는 간몬 해협 지역의 여러 건물(현재는 파괴됨)을 설계했고, 쓰마키 요리나카(1859~1916)는 모지 세관의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이 시대에 붉은 벽돌이 서양에서 널리 수입되었고, 붉은 벽돌을 사용한 건축은 메이지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영국영사관은 외국인 건축가가 붉은 벽돌을 사용해 일관되게 서양의 미학에 따라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관공서, 기업, 교육 시설인 경우가 많지만, 민간 건축물(점포와 창고 등)도 이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붉은 벽돌이 사용되어 있다면 1800 년대 후반에서 1900 년대 전반의 건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이쇼 건축(1912~1926)

다이쇼 시대의 건축가들은 서양의 설계 양식이 친숙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건축에는 전통적인 요소와 외국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례가 1915년에 지어진 아키타상회 빌딩인데, 1층 오피스는 서양식이지만, 2층 이상은 일본의 전통적인 구조의 거주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900년 초반부터 수십 년 동안 모두 벽돌로 이루어져 있던 설계는 점차 철골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1923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벽돌로 된 건물이 지진의 흔들림에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 비참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이쇼의 건축가들은 예술적인 표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일본 최초의 근대 건축 운동인 '분리파'가 등장했습니다. 이 운동은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과 빈 분리파(1897년 결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운동의 지침은 전통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1928년에 소멸했지만, 그 구성원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일본 건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쇼와 건축(1926~1989)

쇼와 초기는 모지 우선 빌딩과 구 다렌 항로 터미널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 데코 등 서양의 예술운동에서 받은 영향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쇼와 초기의 건축물은 정교한 장식과 호화로운 모티브를 특징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식은 시모노세키의 간몬 빌딩과 모지구청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자유로 변화해 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공공 건축의 디자인은 전통주의로의 회귀를 보여주며, 제관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제관 양식이란 신고전주의 건축을 말하며, 대부분은 붉은 벽돌 구조로 전통적인 이리모야즈쿠리(팔작집 지붕의 건축 양식)의 지붕이 특징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든 시대의 건축물이 광범위한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이후의 부흥기에는 빠르고 저렴하며 화재와 지진에 강한 서양의 공법과 재료(철근 콘크리트 등)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쇼와 후기의 건물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